운전적성정밀검사
교 정 교 육

한국교통안전공단

목 차

제1절 운전자 교육 · · · · · · · · · · · · · · · · · 1

1. 운전자 교육 목표 · · · · · · · · · · · · · · 1

2. 운전자 교육 방법 · · · · · · · · · · · · · · 4

제2절 운전지도상담 · · · · · · · · · · · · · · · · 5

1. 운전지도상담 · · · · · · · · · · · · · · · · 5

2. 운전지도상담 단계 · · · · · · · · · · · · · 6

3.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상황조건 · · · · · · 15

4. 상담자가 알아야할 기본기술 · · · · · · · · 17

제3절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의 활용 · · · · · · · 22

1. 운전적성 · · · · · · · · · · · · · · · · · · 22

2. 효율적인 활용방법 · · · · · · · · · · · · · 24

제4절 검사항목별 교정교육 · · · · · · · · · · · · 25

1. 교정교육 일반 · · · · · · · · · · · · · · · 25

2. 검사항목별 교정교육시 유의사항 · · · · · 26

제5절 교정교육 활용예 · · · · · · · · · · · · · · 42

1. 교정교육 계획 수립 · · · · · · · · · · · · 42

2. 교육자료 작성 · · · · · · · · · · · · · · · 44

3. 교육일지 등 교육현황 기록·관리 · · · · · 52

제1절 운전자 교육

1. 운전자 교육 목표

교육목적(Goal)이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활동의 방향을 의미하고 교육목표는 교육목적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보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운전자 교육의 기본 목적은 안전운전과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3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오류 개선 및 위험인식과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운전능력의 영역',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 및 태도 개선의 영역', 운전자의 자기조절적 태도를 강조하는 '자기통제 영역'이 있다. 운전자의 교통행동이 사고의 반복, 상습 법규위반, 난폭운전 등 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 행동은 운전자의 가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운전능력의 개선만으로는 태도와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운전능력의 향상

실제 운전에서 소홀하게 다루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의 위험인식, 위험회피 및 위험극복 능력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있다. 즉, 도로환경, 기상상태, 운전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다른 운전자 등에 따른 상황별 위험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① 안전운전능력

운전의 확인, 예측, 결정, 조작과정의 중요성과 습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최근의 사고사례를 통해 각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의 오류로 사고 발생했는지 분석하여 인지, 판단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② 방어운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며, 기본적인 사고유형의 회피방법을 설명하고, 특히 시인성, 시간과 공간관리가 가장 기초적인 기술임을 이해시킨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사고발생 빈도가 잦은 사례,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의 위험요소 및 최근의 이슈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어운전 방법을 제시한다.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자 자신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운전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말려들거나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도록

한다. 방어운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자기 자신이 사고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운전 ⓑ자기 자신이 사고에 말려들어 가지 않게 하는 운전 ⓒ타인의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는 운전 ⓓ항상 최악의 사태까지 예견하며 대비하는 운전 ⓔ상호 간의 양보정신을 갖는 운전 ⓕ확신이 없는 추측운전은 하지 않는 운전 ⓖ잘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잘 보이게끔 하는 운전 ⓗ냉정한 판단과 보다 빠른 행동을 취하는 운전이다. 즉, 완벽하지 못한 주의력을 보완하기 위해 그저 막연하게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환경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위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운전을 말한다.

③ 위험예측

위험예측이란 말 그대로 위험을 미리 안다는 뜻으로서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비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위험을 미리 찾아내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습활동이 위험예측훈련이다. 위험예측훈련이란 ⓐ운전중 상황 속에 숨어 있는 위험요인과 그것이 초래하는 현상을 ⓑ운전 상황을 묘사한 도해를 사용하여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이용하여 개별 및 소집단에서 다함께 대화하고 생각하며 합의한 뒤 ⓓ위험의 포인트를 정하고 중점 실시항목을 선정하여 지적・확인함으로써 ⓔ운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위험도로 및 사고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 타 차량의 불법행위, 불규칙 보행자, 궂은 날씨 등이 있다. 운전자와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법규위반, 위험감행운전, 피로, 가정이나 직장의 스트레스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운전 시 위험대응에 대한 습관적인 실천 운전이 필요하다. 실제 교통사고 사례 분석에 의거하여 위험한 교통장면을 구성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생각하도록 하고,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감춰진 위험 및 운전자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까지 학습하도록 한다.

2) 안전운전 동기 및 태도 개선

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욕구 및 동기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운전과 부합된 방향으로 운전자의 동기를 강화시킨다. 운전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운전자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준법정신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준법정신과 관련해서는 법에 순응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이해, 법에 적합한 교통행동의 습관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의해 파악된 자신의 운전적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운전 장면에서 자신의 결함사항을 고려한 운전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운전동기

운전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습관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운전행동을 관찰하는 동기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특정 행동은 단 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친 수많은 경험과 결과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행동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기 관찰에 있어서는 특히 상황에 대한 자기중심적 평가와 해석 대신 상황의 전체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운전태도

사고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태도 및 가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 요인이 되는 태도, 가치를 수정하겠다는 동기를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의 습득과 경험을 통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적 태도 및 운전행동의 모순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운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자기통제력 강화

① 운전자의 해석체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사라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이고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것이라 판단하는 귀인적 편향성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이를 올바로 다루는 현실적 기술을 터득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조절과 다른 사람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제라는 것을 자기성찰 등의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

② 동조성과 사회적 압력

동조성은 자기 확신이 적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또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행동이다. 운전 중의 동조성과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여,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동기를 고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주장성이 필요하다.

③ 운전성격의 개선

운전의 병리적 성격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운전 성격을 갖도록 유도한다. 사고운전자의 성격 특성으로 설명되는 과속 및 공격성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성격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개인적으로 필요 할 경우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계시킨다.

2. 운전자 교육 방법

교육은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마음이 서로 오가는 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강요성은 오히려 반발심만 가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업체실정에 맞는 상황별 위험운전 및 방어운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상담・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개인 및 업체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방식은 개별교육과 소집단교육, 집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별교육

전문 상담자 혹은 교통안전관리자가 개별면담을 통하여 적성결함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수성 및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상담 상대자와의 질의내용은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내용의 결과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및 개인적인 유대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보통의 인사말을 주고 받고, 교육목적을 이야기하며 동의를 구한다.
- 교통사고 발생순간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듣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을 찾으며 결론을 끌어낸다.
-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을 의논한다.
- 안전운전의 실행을 위한 조언을 한다.
- 고민에 대해서는 항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한다.

② 운전방법을 조언할 때

- 보통의 인사말을 주고 받고, 교육목적을 이야기하며 동의를 구한다.

- 자신의 운전방법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
- 특이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 그 단점이 운전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법을 의논한다.
- 안전운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
- 자신의 결함을 매일 조금씩 개선하도록 한다.

③ 면접에 의한 개별지도

- 복도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종전 교육사항을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을 건다(너무 자주하면 역효과).
- 상대방이 잊어버릴만 할 때(1주일 또는 1개월에 1회정도) 적절히 점검한다.
- 특이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 그 단점이 운전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법을 의논한다.
- 안전운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
- 자신의 결함을 매일 조금씩 개선하도록 한다.

2) 소집단 교육(GROUP 형성교육)

적성결함을 세밀히 분석하면 분산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결함내용이 유사한 운전자들을 모아 집단(group)을 형성한 후 교육을 통하여 지도·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호간 대화와 토의가 거듭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향상되며 사고방식도 비슷하게 되어 단기간에 효과를 성취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은 7명 내외가 적당하다.

3) 집체교육

개인 및 그룹별 교육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교육은 포괄적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는 적다. 그러나 전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고, 비록 운전적성 결함내용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더라도 예비지식을 교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는 교통사고 사례를 적성결함과 결부시켜서 교육적인 분위기 유지와 이해력 증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2절 운전지도상담

1. 운전지도상담

사고 운전자들은 사내 안전 관리자로 부터 칭찬보다는 꾸중을 듣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회사에 상당한 물적 손해를 끼친 신분에서 본의든 아니든 형식적으로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안전 관리자를 만나게 된다. 사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안전운행을 하겠노라고 사과도 하고 때로는 심한 질책도 감수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안전 관리자는 불량학생을 다루는 훈육교관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운전자들과의 만남이 우호적이거나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 또한 사고운전자들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질책과 잔소리를 하는 언행을 하는데 쉽게 익숙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보면 사고운전자가 자연인으로서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다루어야 할 골치 아픈 문제 인간으로 여겨지게 된다. 안전 운전 관리자들이나 회사 임직원들은 사고이외의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을 그다지 밀접하게 만날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단순히 운전자로서만 보였던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역할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는 칭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간관계의 한 파트너로 대접해야한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운전자들을 대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지식과 실천적 노하우를 배울 시대가 되었다. 운전지도상담이란 경험과 식견을 갖춘 상담자(교통안전 전문가)가 직업운전과 관련하여 내담자(사업용 운전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경청하고, 상담기법을 통하여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아래에 나열한 몇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내담자가 특정한 잣대로 평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제공
ⓑ 내담자가 경험한 교통사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토로할 기회제공
ⓒ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계획을 함께 탐색하고 협의하는 기회제공
ⓓ 내담자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자기통찰을 할 수 있도록 검사해석제공
ⓔ 바람직한 운행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2. 운전지도상담 단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상대화와는 달리 좀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대화할 때 “주목·경청-공감적 반응-지도적 행동”의 세 단계를 사용하여야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로 오토바이, 무단횡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및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등이 있다. 둘째, 사고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여 운전 및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원망 및 분노감정 등이 발생한다. 셋째,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발생지점, 피해자 상황 등이 지속적으로 연상되어 사고 재발 우려 등의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운전과 관련된 질환,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 저하 및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자기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상담을 원하는 사업용 운전자들은 현재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향후 안전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일상적인 수준의 주의집중으로는 원만한 대화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3단계 대화방식을 반드시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얘기를 경청하여 그가 겪고 있는 고충의 핵심내용과 심정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문제(사고원인 및 사고처리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생활고충 등)해결을 위해 함께 협의하는 동반자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목· 경청

상담을 하거나 남과 깊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을 기울일 때, 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담자를 향할 때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효과적인 관심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또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 준다.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시지가 언어적으로 전달되든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든, 분명하게 전달되든 모호하게 전달되든, 내담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세지를 상담자가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목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러 가지 신호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기술이다.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 자세를 취할 때는 자기중심이 되기 쉽고, 상대방에게 주목하는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잘 듣는 다는 것은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비치는 독특한 관점이나 경향성까지 냉철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가 쌓이면 기회를 보아 적절한 시점에서 내담자에게 그런 특징(왜곡, 부조화)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비효율적인 경청

상담자도 자기 생각이나 욕구에 골몰하여 내담자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여 내담자가 “내 말을 듣지도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예가 많다.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롭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의욕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울 때가 많다. 아래에는 경청에 장애가 되는 일상에서 흔히 빠지는 대화 습관을 나열하고 있다.

ⅰ) 평가적인 경청

상대방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해도 평가적 자세를 취하는 수가 많다. 평가적 경청 즉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는 것은 내담자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완전히 판단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담자와 그의 세계 및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판단을 잠시 접어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내담자가 당신 앞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법적 도덕적 평가와 질책을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겨울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적인 경청에도 생산적인 측면이 있다. 내담자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 이를 바꾸거나 극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은 아주 유용하다.

ⅱ) 여과된 경청

고도의 선택적 편견을 개발함으로서 어떤 내용은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것은 무시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견은 이해를 왜곡시킨다. 상담자도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 나이, 직업, 사회경제적 위치, 생활양식에 따라 내담자들을 분류하기 쉽다. 그러나 긴장하고 매번 신중하게 내담자를 대해야 한다.

ⅲ) 전문지식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사고를 왜곡시키는 여과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편의상 분류를 하기 위한 명칭이 공감적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론에 관한 책도 사람을 특정 범주 속에 묶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간단히 말해 교양수준의 심리학을 배운 것이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조직화 할 수 있는 남다른 특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청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낳는다.

ⅳ) 사실 중심의 경청

내담자에 대한 사실만 충분히 수집되면 마치 무언가 해결해 줄듯이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을 수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내담자가 놓인 상황을 경청하면서 주제와 주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내담자가 당신을 떠날 때는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ⅴ) 전문가적 반응연습(멘탈 리허설)

내담자가 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느라고 상대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숙련된 상담자도 내담자가 하는 말에 '완벽한 반응'을 궁리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더듬거리며 말하든 유창하게 말하든 그가 하는 말에 배어 있는 주제와 핵심 메세지를 열심히 경청하면 반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열심히 경청하는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ⅵ) 동정적 경청

내담자는 고통을 겪고 있거나 어떤 의미에서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러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동정심이 넘치다보면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왜곡시키거나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상대방을 동정하면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거리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당신이 그 내담자의 인생에 끼어들어 직접 도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이틀 하고 말일이 아니라 당신은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해야 한다.

ⅶ) 끼어들기

상담자가 끼어드는 것은 경청하기를 중지하는 것이다.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자기가 리허설 해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내담자가 하는 말을 부분적으로 밖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달한다. 내담자가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상담자의 권위로 말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것이다. 누군가 내 말을 가로채서 할 말을 충분히 못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면 다음 진행단계에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는가?

② 효율적인 경청

주목· 경청이란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말을 가능한 한 평가 왜곡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서 일단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 장면에서 주목· 경청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물리적, 심리적 주의집중을 통해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ⅰ) 내담자에게 주의집중

주목· 경청의 첫 과정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뒤적이는 등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상담자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내담자에게 주의를 집중한다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며, 주의 깊게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네 얘기 끝났냐? 그럼 이젠 내 얘기 할 차례다." 식의 핑퐁게임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 상담자에 대해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이고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지만 자신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한자락 소망을 감추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려면 경청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짜증스럽게 왔다가 희망으로 돌아가는 내담자의 펴진 어깨는 상담자들에게 보람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ii) 비언어적 주목

상담자가 내담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야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관심을 보이기로 결정한다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 관심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2) 공감·반응

"인간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이해하게 해 주는 공감은 우리가 다 알고 소중히 여기듯이,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심리적 영양소이다." -Kohut, 1978

"공감은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한다." - Covey, 1989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대화기술로서 일상생활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지만' 이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감정과 생각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기술은 그 자체가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상담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대화의 기술과 기법은 상담자가 지닌 인간성의 표현이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래에 소개하는 대화 기술들을 제2의 천성처럼 능숙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① 단순 촉진 반응

적절한 주목행동과 개방적 질문이외에도 단순촉진반응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 "그래요", "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과 같은 단순 촉진 반응이나 상대가 얘기한 부분을 다

시 반복해주는 방법으로 내담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려 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거나 풀어 놓고자 할 때는 지긋이 침묵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담자가 냉정을 되찾아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좀 더 이성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효율적인 상담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담자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될 때 그 사람에게 현실의 주변사람들이 그 내담자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직면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른다. 보다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자 대화(Shadow Conversation)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대화중에 듣는 사람으로서 들어주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표면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단순사실을 내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세계와 접촉하게 하는 기술이라면 기본적인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상담을 시작하는 안전한 방법은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내담자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이해한 내용을 내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상담 받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느냐고 내담자에게 물으면 이해받는다는 것이 단연 우선순위에 오른다.

② 기본적 공감 반응

기본 공식은 “~ 때문에 (또는 ~ 할 때) ~한 느낌이 드는군요.”이며, 특정감정을 느끼게 한 정확한 경험과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내담자가 드러낸 정확한 정서를 가리킨다.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서와 그 강도에 따라 “당신은 ~라고 느끼는 군요”라고 말한다. 내담자에 따라서는 자기의 감정을 들추어내서 논의하는 것을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떤 내담자는 특정한 사건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어떤 내담자는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감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가 겪은 경험과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떤 내담자는 이와 정반대이다. 공감이란 이러한 차이를 잘 찾아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를 일단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나 행동 지향적 경향성을 갖게 된다. 내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도 갈망하던 직장을 드디어 구했다.”고 말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다.

ⅰ) 하나의 단어 : 정말 기쁘겠습니다.

ⅱ) 구 : 공중에 붕 뜬 것 같겠습니다.

ⅲ) 경험적 진술 : 당연히 얻어야 할 것을 드디어 얻었다고 느끼겠군요.

ⅳ) 행동적 진술 : 어디 나가서 한잔 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식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한 뒤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할 수 있다. 그러면 획일적인 반응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기본적 공감 사용 원칙

ⅰ) 상담과정에는 항상 공감을 사용

공감은 사람들과의 접촉양식이자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하고 상대방의 지각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공감은 상담과정 전체를 통해 내담자를 지지해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내담자가 상담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공감을 통해 둘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게 된다.

ⅱ) 핵심메세지에 대한 선별적 반응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에 다 공감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핵심 메세지, 다시 말해 내담자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 중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찾아 여기에 반응한다. 상담자는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계속 물어가면서 내담자와 함께 검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ⅲ) 말보다 상황에 대한 반응

좋은 공감적 반응은 내담자의 직접적인 말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에만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놓인 상황,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고 내담자의 말에 스며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한다.

ⅳ) 공감을 통한 상담의 촉진

공감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이다. 또한 공감은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감의 유용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앞으로 얼마나 나아가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ⅴ) 부정확한 이해의 수정

상담자라면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 공감반응을 통해 상담자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을 나누다 보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감은 지각한 내용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선, 상담자 반응이 정확하다면 상담자의 이해가 옳다는 것을 내담자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적해 준다. '고개 끄덕임'이나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와 같이 수긍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로는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상담자 반응의 정확성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문제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다. 상담자가 다시 공감적으로 반응해 준다면 다음 단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vi) 이해한 척 하지 않기

내담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상담자는 당연히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해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상담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vii) 선 경청 후 대화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어떤 부분이셨나요?" 상담자는 간단하게 이상과 같은 개방적 질문을 한 다음에는 상대가 얘기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을 보여주고 내담자가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 속 얘기를 거리낌 없이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대답이나 설명, 지시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충동을 가라앉히다 보면 느긋하게 앉아서 경청을 하는 것이 즐겁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경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러한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도 된다.

④ 개방적 질문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말하도록 촉진한다. 개방적 질문이란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는 한 두 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더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이 개방적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

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등의 폐쇄적 질문으로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답변만을 얻게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폐쇄적 질문(일방적 또는 상호배타적)을 자주 사용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자신에게 수동적이고 얌전한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⑤ 단순 재 진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말없이 듣고 바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술이다. 군대에서 흔히 쓰는 복명, 복창이라든가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중요한 핵심사실이나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과 원리는 같다고 보면 된다.

⑥ 바꾸어 표현하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들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보다 명료한 방식으로 재 표현을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나의 언어로 각색하여 명료하고 간결하게 반응한다. 이 기술의 중요한 목적은 관계의 형성 및 신뢰를 얻는데 있으므로 상대방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발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

⑦ 공감하기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생리적 긴장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건설적인 문제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우리가 압력 밥솥에 들어있는 증기를 제거해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공감이란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여 한 두 문장으로 상대의 감정과 그 배경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⑧ 요약하기

대화내용이 길어지거나 복합적인 내용이 중간 정리 없이 계속 진행될 때면 간단한 요약을 함으로써 잘 듣고 있음을 전달하거나 얘기가 얽히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굵은 줄기를 잡아나가는 대화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예로서 단순히, 첫째, 둘째, 셋

째 등 나열하여 요점을 드러내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분리하여 대조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중 중요도 순으로 배열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반복하는 능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녹음기도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원하는 것은 몸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해 주는 것이다.

3) 지도적 행동

주목·경청 및 공감적 반응을 통해 내담자가 감정이 정화되어 심적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상담자는 그 문제 상황에 연루되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운전자의 비효과적 행동패턴을 직면시키고 이해·수용시킨다. 이를 위해 내담자에게 특정자료, 사실, 자원,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의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전달할 때, 상담자는 공감적이고, 예의바르고,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정보의 역할은 내담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교육시키는 것이다. 반면 직접적 안내는 상담자가 제안하는 것, 지시를 주는 것, 혹은 내담자가 해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이 단지 사실이나 자료를 전달하지만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제안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 직접적 안내는 내담자가 해야 한다고 상담자가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위험예측 및 방어운전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접적 안내를 통해 안전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3.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상황조건

1) 적절한 공간배치

효과적으로 주의집중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벽들을 일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커다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내담자와 마주보고 앉는다면 그 내담자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좌석배치는 내담자에게 “난 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하겠지만 그 이야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의도를 전달하게 된다. 내담자와 진지한 대화를 하려면 사무실 공간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는 것보다는 책상 옆에 의자를 놓는다거나 편한 의자 두개를 서로 비스듬히 마주보게 놓는 것이 좋다. 이때 내담자의 의자를 상담자의 의자보다 낮은 위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2) 적정한 거리유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 오랜 시간동안 70cm이내의 거리에 앉아 있게 되면 불편함과 때로는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 너무 밀착된 거리는 물리적 장애물을 사이에 놓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비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중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기미가 보이면 의자를 약간 이동하여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높은 곳에 앉게 되거나 내담자는 앉아 있는데 상담자는 서있게 되지 않도록 한다.

3) 조용한 장소확보

상담자가 진정으로 내담자에게 주의집중을 하고자 한다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소음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다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는 것도 좋다.

4) 신체적 표현

상담자는 다양한 신체적 표현을 통해 내담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에 임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가령 담배를 권하거나,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거나, 대화가 끝났을 때 등을 두드려 주는 행동 등은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해준다. 대화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

5) 시선접촉

상대방에게 완전히 주의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거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선접촉방법이 아니다. 올바른 시선접촉이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몸으로 그리고 다시 얼굴로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계속 쳐다보면 불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얼굴에서 시선을 약간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담자나 상대방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다시 상대방의 얼굴로 시선을 이동시켜야 한다.

6) 제스쳐(몸짓, 손동작 등)

눈과 함께 신경을 써야할 중요한 신체언어는 손동작이다. 자연스런 손동작으로 상대방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열고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몸짓을 해야 한다.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경우, 그런 자세가 당사자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귀찮고 졸리다.'는 메세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4. 상담자가 알아야할 기본기술

1) 일반 행동 지침

적극적으로 입으로 들어 주는 경청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가치가 있는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아래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① 인간적 만남을 만들어라.

당신이 내담자와 인간적 만남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 방해할 수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너무 많은 내담자들을 보아야 된다면 조급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상담자는 상담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다른 내담자를 또 만나기 전에 5-10분의 공백시간을 둔다. 그러한 공백시간 동안에 앞서의 상담일지를 작성하거나 다음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조율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상담회기 사이에 짧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독특한 인간인 각 내담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② 상담활동을 위한 공감대를 발달시켜라.

인간적 만남을 만드는 것은 상담활동을 위한 유대를 발달시키는 첫 단계이다. 유대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변화시키려고 강요하거나, 내담자가 전혀 동기화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담자는 능숙한 경청자이다.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해 내담자들이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상담자는 신뢰감과 지지를 가진 공감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③ 내담자에게 상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라.

내담자들은 흔히 상담과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다. 내

담자들은 상담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를 방문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기대가 무시되어지면, 내담자들이 상담을 그만두거나 상담의 진전을 만드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우선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의 수용적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이 이해한 그의 감정과 생각을 열심히 공감해 주고 때로 맞장구와 추임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껏 얘기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상담이다.

④ 내담자와 보조를 맞추어 가며 리드하라.

'감정의 반영'(Reflection of feeling)과 '내용의 재 진술'(Restatement of content)은 내담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다. 감정의 반영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채어 그러한 감정을 거울에 비추듯 조명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내용의 재 진술'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을 다시 표현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담자의 입으로 내담자의 심정(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을 대신 말해 주는 행위로서 다시 표현하면 상담자의 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때 상담자가 반영하고 표현한 내담자의 심정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다시 물어서 듣고 또 수정하여 열심히 입으로 들어 주면 된다. 단 몇 차례의 감정반영과 재 진술만으로도 내담자는 당신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⑤ 간략하게 말하라.

상담자들은 내담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적게 말해야 한다. 요약할 때를 제외하고,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라. 불행하게도, 매우 훌륭한 상담자들조차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다. 상담자들이 자신들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내담자에게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 이용하는 한 가지 기법이 '최소의 촉진적 표현(minimal encouragers)'이다. 최소의 촉진적 표현은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 음~", "저런!"과 같은 언어적 표현과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몸짓이 있다. 소위 추임새를 주면서 상대가 맘껏 말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⑥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 지 모를 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특히 상담에서 침묵은 금이다. 아마도 침묵이 사교적 대화에서는 어색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상담자들은 흔히 침묵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내담자의 표

현 사이에 재빨리 끼어든다. 이러한 성급한 표현은 내담자의 내적 처리과정을 사실상 중단시킨다. 상담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내담자의 일이지 상담자의 일이 아니다. 상담자는 침묵하는 기간에 조용히 앉아 내담자가 이야기를 재개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차단하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다. 상담자들은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경청도 역시 도움을 준다. 때때로 경청은 내담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모든 것이다.

⑦ 당신이 지지했던 것만큼 직면할 수 있다.

상담에 있어 직면(Confrontation)은 내담자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내담자에게 직면한다는 것은 “잠깐 중단하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보시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최선의 원칙은 당신이 지지했던 것만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support) 와 공감(empathy)은 상담관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상담의 초기단계에서 섣부른 도덕적 평가나 직면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상담관계를 확립하면, 직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자각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돕는 전략

자기탐색(self-exploration)은 내담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에 대한 자각과 자아개념의 정교화와 심층화를 의미한다. 자기탐색은 변화가 일어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치료적일 수 있다.

① 조언을 피하라.

흔히 친구들이나 가족구성원들이 조언(advice)을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은 조언을 하지 않는다. 특히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상담자들(초보이거나 경험을 가진)은 그들이 조언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급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보다 자기탐색을 촉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친구들과 가족구성원들이 흔히 내담자들에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조언은 수없이 들었던 케케묵은 얘기일 수 있다. 어떤 내담자들은 심지어 그러한 조언에 저항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조언을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보는 지식, 다른 대안, 전문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 혹은 내담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들로 구성된다.

② 성급한 문제해결을 피하라.

상담에 있어 성급하게 문제해결을 추구하려 하면 보통 실패한다. 내담자들은 유망한 해결책을 부정할 수 있고 혹은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심지어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상담자가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 내담자들은 변화를 위한 궁극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들은 바람직한 목표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만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그들의 인간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즉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뿐이다. 문제의 소유주인 그 당사자는 몇 날 몇 밤을 고민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비책들을 듣고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을 수 도 있다. 그래서 섣부른 조언은 때로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자신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적 설득 그 자체는 변화를 도모하는 가장 약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상담자가 해주어야 할 일은 그들의 문제해결 실천의지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찾아내어 입으로 열심히 들어 줌으로써 그들을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질문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

초보상담자들은 내담자와 대면해서 단순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초보상담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거나 혹은 조언을 주려고 그러한 질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담자들은 계속되는 일련의 질문을 위협으로 지각할 수 있다. 질문 중에서 특히 “왜?”란 질문은 내담자를 방어적이게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준다. 질문은 상담자가 상담의 독점적 통제를 하게하고 부적절하게 내담자를 리드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을 하는 자는 권력자가 되고 대답을 하는 자는 수동적인 신하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로부터 보다 정교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폐쇄형 질문은 특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내담자는 질문에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답변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촉진할 때는 특히 폐쇄형 질문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질문 방식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법 전문가들이 흔히 사용한다. 수 없는 취조와 조서더미 속에서 이미 충분한 사실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핵심만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이런 질문방식은 상대를 주눅 들게 하여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입 닥치고 있으라는

메시지가 된다.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화난 이유를 기술하도록 촉진한다. 만약 당신이 매우 특수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고수하라. 일반적으로 "Why?" 보다는 "How～?"가 내담자에게 훨씬 더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④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여라.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 정교한 비언어적 구성요소인 음조, 안면 표현, 눈 마주침, 그리고 신체움직임 등은 언어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막역한 친구 간에는 상대방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금방 눈치를 채게 되는 이치와 같다.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직면하는 특히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이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을 맞추어 보자고 가벼운 도전을 하는 것은 상담을 충분히 촉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 다만 부드럽게 해야 한다.

⑤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내담자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직장 상사의 비합리성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 사회의 제도나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상담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있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의 가상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실존하는 내담자의 감정을 추적하는 것(당신은 그 상사의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있다. 거의 일관되게,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상담에서 주인공이자 고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눈앞의 내담자이다.

⑥ 요약하라.

요약하기(summarizing)는 상담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문제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로서 상담회기 중에, 혹은 상담회기의 끝부분에 중요한 주제를 요약할 수 있다. 내담자 혹은 상담자가 둘 중에 아무나 요약할 수 있다. 누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확인 동의하거나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충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의 노력을 들여 상담자가 내담자들과 함께 상담과정을 요약하는 행위는 변화의 불쏘시개를 지피는 것이 될 수 있다. 내담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방해 받지

않고 털어 놓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확인한 것이다. 그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 있는 활력을 얻어갈 수 도 있다.

제3절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의 활용

1. 운전적성

일반적으로 운전적성을 운전동작 및 운전조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요한 경우는 과속운전도 하고, 적당히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는 운전적성이 있고, 천천히 달리거나 고지식한 운전자는 운전적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운전적성을 사회적 관심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기 생각대로 차로를 변경하고 앞 자동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는 운전자는 운전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운전은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교통참가자(운전자와 보행자)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 운전적성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을 고려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으로 운전적성 여부를 관련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운전행동은 지각, 판단, 동기, 성격, 안전태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적성이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총괄적인 조건을 의미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고요인의 어느 일부분의 결핍에 의해 야기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진 결과이다. 예를 들어 과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획득의 결여나 판단능력의 부족 등이 과속행위 및 교통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되는 것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도추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동기나 욕구에 의해 각색되고 왜곡되어 처리되어진 정보와 연결될 때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1) 일반적성과 운전적성과의 차이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기본조건을 측정하여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운전적성검사이다. 검사는 사고유발경향성(accident proneness)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운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구(심리척도)를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적성상의 결함사항 검출 및 교정에 대한 단

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통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성과 운전적성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적성은 특수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폭넓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특정 사람에게 존재하는 능력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운전적성은 특수한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보통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 적성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고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로서의 긍정적인 성향을 의미하지만, 운전적성의 경우에는 배제의 원리에 따라서 부적절성을 문제로 하고 부정적인 면이 강조가 된다. 따라서 일반 적성에서는 해당 적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운전적성에서는 해당 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적절한 적성을 보이는 사람이 소수에 해당한다.

셋째, 일반 적성은 특정 잠재능력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배제하지만 운전적성은 운전에 있어서 필요조건의 결여를 문제로 다루면서도 그 특성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이나 훈련의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활용시 유의사항

첫째, 검사결과에 대해 낙인을 찍는 식의 해석은 삼가야 한다. 검사결과는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여 해석되며, 수검당시의 심리적 상태나 수검방법의 이해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결함사항의 교정 등을 통하여 수검당시의 적성이 변화될 수도 있다.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판정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해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운전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필요한 검사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업용운전자의 운전적성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 및 교정지도를 통하여 결함사항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검사이다. 적성상 부적절한 운전자를 선별하여 취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부적합율은 4%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함사항에 대한 진단, 교정 및 지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세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취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사고 및 벌점과다자에 대한 특별검사 이수에 한정시키는, 국한적인 기능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법적으로는 신규검사 결과 적합자와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교정교육 이수로 자격요건이 구비

되지만,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실질적 효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활동이나 주기적인 교육 및 운전지도상담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활용방법

1) 운전지도상담

운전지도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하여 자신의 운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이루고자 상담자와 내담자는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상담자는 변화과정을 촉진시키며 내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 것인지를 결정한다. 특히 사고후유증에 따른 복잡하고 무거운 정서를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줌으로서 카타르시스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운전적성정밀검사결과와 실제운전행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격려한다. 운전지도상담을 통해 건전한 인간관계, 내적 성장, 실존의 문제,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안전운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2) 교육지도

관리자에 의한 지도시 먼저 교육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3년간의 사고사례, 생활태도, 일상적인 운전행동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전자 교육자료를 준비한다. 교육자료가 준비되면 교육의 효과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 적성상의 결함사항 등을 지적하게 되면 거부감을 보이게 되므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개인에게 앞으로의 운전방법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제출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최근의 사고사례와 관련하여 사고상황 등 예방책에 대해 토의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타코미터 등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과속 등 위반시 벌금제도를 사규로 도입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육대회비 등 운전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고에 연결되기 쉬운 버릇이나 신체의 동작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만한 운전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운전자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운전자와 함께 분석하고 운전자의 조언도 들으면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조언해 주고,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검사의 특성상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부정하고, 정밀검사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항변이 타당한 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결과에 대해 음미해 봄으로써 운전자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야 한다. 교육담당자는 운전자 개인의 결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이 필요하다.

3)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지도

관리자에 의한 지도보다 효율적인 지도방법이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지도이다. 먼저 소집단 구성에 대한 원칙이 필요한데, 운전자의 특성, 정밀검사 결과의 유사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단을 구성한다. 소집단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이다. 집단의 분위기는 화목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먼저 소집단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의 진행방향을 설정한다. 안전운전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발표토록 한다. 진행은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이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집단이 갖는 좋은 분위기나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소집단 활동의 장점인데, 통찰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만큼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격려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협조적인 분위기 형성으로 대인관계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제4절 검사항목별 교정교육

1. 교정교육 일반

1) 1~2 등급(항목별)

평가항목별로 양호한 적성을 보이는 운전자이다. 별도의 교정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안전운전과 관련하여 정기교육을 통하여 안전운행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2) 3~5 등급(항목별)

평가항목별로 부적절한 적성을 보이는 운전자이다. 평가항목별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결함사항에 대하여 주지시킴으로써 적성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검사항목별 교정교육시 유의사항

1) 신규검사

① 현행 신규검사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각 운동 요인	속도예측 검 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예측 능력이 부정확한 운전자이다. 속도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과속의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다른 차량의 이동속도가 자신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차로변경, 교차로 주행 시 특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정지거리 예측검사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차량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어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야확보 후 후속행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주의전환 검 사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가 늦고, 순간적으로 주의를 잃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전 중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네비게이션 조작 등 운전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도록 지도한다.
	반응조절 검 사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운전에 필요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주변인식 및 주의배분 능력이 부족하면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 이륜차에 의한 사고 등에 취약하게 된다. 운전 시 발생하는 상황을 잘 살펴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고, 이면도로 운행 시 보행자나 이륜차를 조심하고 과속하지 않는 습관이 갖도록 지도한다.
	변화탐지 검 사	시각자극을 기억하고 변화를 찾아내는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교통상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하면 신호등 변경이나 보행자 출현 등 변화 상황을 순간적으로 놓칠 가능성이 높다. 혼잡지역이나 교차로에서는 집중하여 운행하고 신호등, 보행자, 이륜차 등 갑작스럽게 출현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거리지각 검 사	원근거리 시지각력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이다. 원근거리 시지각력이 부정확하여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피로나 시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력 등을 점검해보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토록 한다.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피하도록 하며,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주행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주차시 주차공간 확인 등은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
지적 능력 요인	인지능력 검 사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혼잡한 도로나 낯선 도로 운행 시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도로사정 등 교통 환경을 숙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지각성향 검 사	교통과 관련되는 정보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돌발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니 잡담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혼잡한 교통상황, 횡단보도 지역에서 주의하도록 한다. 특히 해질 무렵이나 야간 운전 시 더욱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적응 능력 요인	정 서 안정성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매우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충분히 표현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상태로 보인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전기능 저하로 인한 사소한 실수나 사고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도록 하고, 수시로 인간적인 상담 및 면담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 동 안정성	일반적인 사회적 규칙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상황 등에서는 위험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신적 민첩성	운전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운전 상황 자체에 주의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운전자이다. 이러한 기능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노화 등에 의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인해 점검해야 될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통화 등은 삼가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현 실 판단력	평소 생각이나 경험이 보통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남들은 흔히 경험하지 않는 생각이나 특이한 감각현상 등의 문제로 인해 운전행동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운전 중에는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내원하시어 보다 심층적인 심리평가를 받아 보도록 한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생 활 안정성	가족 등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안정한 생활, 직업상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황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 이어서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운전 컨디션이 저하되어도 운전을 하거나, 혹은 실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하기 전날에는 음주를 삼가시고, 음주운전이나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② 이전 신규검사 Ⅰ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 각 운 동 요 인	속도예측 검 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예측 능력이 부정확한 운전자이다.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과속의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불안정하여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차로변경, 교차로 주행 시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과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보상(휴가 등)이나 벌칙 등을 사규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지거리 예측검사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차량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어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야확보 후 후속행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주의전환 검 사	주의전환능력에 문제가 있어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게 되면 중요한 사상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통의 흐름에 주목하며 운전하도록 한다. 또한 순간적으로 주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교통상황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주 의 폭 검 사	주의 폭이 좁고 주의분산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전방주변의 사상을 폭넓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면도로 운행, 이륜차에 의한 사고에 취약하므로 차로변경이나 이면도로 운행 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변화탐지 검 사	운전 중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취약하고, 주의지속력이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부족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에 취약하므로 횡단보도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운전 중 다른 행동은 삼가고 운전상황에 집중하도록 하며, 차로변경시나 교차로 진입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거리지각 검 사	원근거리 시지각력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이다. 원근거리 시지각력이 부정확하여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피로나 시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력 등을 점검해보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토록 한다.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피하도록 하며, 주행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주차시 주차공간 확인 등은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
지 적 능 력 요 인	인지능력 검 사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여 혼잡한 도로나 초행길 운행 시 서투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사소한 것에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지각성향 검 사	교통과 관련되는 정보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잡담이나 다른 소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혼잡한 도로나 돌발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차로 등 혼잡한 환경에서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적 응 능 력 요 인	정 서 안정성	자신이나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슬프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낀다기보다는 평상시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함을 자주 느낄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나 실제 운전 행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기타 부수적인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수시로 인간적인 상담 및 면담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 동 안정성	교통 및 일반적인 법규를 무시하거나 어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성향을 가지며, 흥미롭고 자극적인 상황을 즐기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진 운전자이다. 운전 시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과속이나 추월 등 위험운전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의 소통을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통해 함께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신적 민첩성	운전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운전 상황 자체에 주의집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운전자이다. 이러한 기능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노화 등에 의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점검해야 될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통화 등은 삼가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현 실 판단력	현재 남들은 흔히 경험하지 않는 감각현상을 겪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능력이 꽤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체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운전자이다. 운전 중에는 다른 생각이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토록 지도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보다 심층적인 심리평가를 받아보도록 한다.
	생 활 안정성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어서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운전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실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업적 만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수시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점검하여 운전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이전 신규검사 Ⅱ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 각 운 동 요 인	속도예측 검 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예측 능력이 부정확한 운전자이다.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과속의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불안정하여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차로변경, 교차로 주행 시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과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보상(휴가 등)이나 벌칙 등을 사규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지거리 예측검사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차량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어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야확보 후 후속행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주의전환 검 사	주의전환능력에 문제가 있어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게 되면 중요한 사상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통의 흐름에 주목하며 운전하도록 한다. 또한 순간적으로 주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교통상황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주 의 폭 검 사	주의 폭이 좁고 주의분산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전방주변의 사상을 폭넓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면도로 운행, 이륜차에 의한 사고에 취약하므로 차로변경이나 이면도로 운행 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변화탐지 검 사	운전 중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취약하고, 주의지속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에 취약하므로 횡단보도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운전 중 다른 행동은 삼가고 운전상황에 집중하도록 하며, 차로변경시나 교차로 진입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거리지각 검 사	원근거리 시지각력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이다. 원근거리 시지각력이 부정확하여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피로나 시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력 등을 점검해보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토록 한다.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피하도록 하며, 주행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주차시 주차공간 확인 등은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
지 적 능 력 요 인	인지능력 검 사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여 혼잡한 도로나 초행길 운행 시 서투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사소한 것에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지각성향 검 사	교통과 관련되는 정보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 중 잡담이나 다른 소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혼잡한 도로나 돌발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차로 등 혼잡한 환경에서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적 응	현 실 성	현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교통 흐름에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능 력 요 인		대한 정확한 지각이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특이한 생각이나 공상에 빠져 전방을 주시하는데 태만하거나 돌출적인 행동 등 운전과 무관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과 관련된 사소한 잡담 등으로 상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사 회 성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성향의 운전자이다. 운전상황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 등 무모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운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양보 운전을 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통사고 사례교육이나 사고 판넬 전시 참관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사내 체육행사 등에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정 서 성	운전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이다.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운동이나 다른 단체 활동을 통하여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통 제 성	복잡한 운전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가능하면 혼잡지역이나 시간대 운행을 자제하고, 잠시 차를 세워 놓고 기지개를 펴는 등의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또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이전 신규검사 Ⅲ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각 운동 요인	속도예측 검 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예측 능력이 부정확한 운전자이다.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과속의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불안정하여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차로변경, 교차로 주행시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과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보상(휴가 등)이나 벌칙 등을 사규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각 운동 요인	정지거리 예측검사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차량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어,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야확보 후 후속행동을 하도록 한다.
	주의전환 검 사	주의전환능력에 문제가 있어 위급상황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주변시 탐지능력(peripheral detection)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통의 흐름에 주목하며 운전하도록 한다. 또한 순간적으로 주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교통상황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주의배분 검 사	주의배분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이러한 운전자는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 이륜차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면도로 운행시 서행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차로변경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운전 중 다른 행동을 삼가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주의선택 검 사	선택적 주의할당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교통환경 중 적절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혼잡한 길을 가능한 피하고, 낯선 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방어운전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한다.
	거리지각 검 사	원근거리 시지각력에 문제가 많은 운전자이다. 원근거리 시지각력이 부정확하여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피로, 시력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시력 등을 점검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로운전을 경계해야 한다. 주행시 안전거리 유지, 주차시 주차공간 확인 등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
지적 능력 요인	인지능력 검 사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이 낮은 운전자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여 혼잡한 도로나 초행길 운행시 서투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도로사정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토록 하고, 사소한 사항에도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지각성향 검 사	교통과 관련되는 정보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운전중 잡담이나 다른 소음 등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혼잡한 도로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전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성격 요인	현실성	현실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이다. 교통흐름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나 판단이 어려우며, 때로는 특이한 생각이나 공상에 빠져 전방주시 태만, 돌출적인 행동 등 운전과 무관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과 관련된 사소한 잡담 등을 통하여 상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5등급자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사회성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운전자이다. 운전상황에서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 등 무모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운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정서성	운전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운전자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적이고 무모한 운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운동 또는 단체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 특별검사

① 현행 특별검사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운전 행동 검사	준수형 (위반형)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거나 교통 표지판의 지시사항, 지정차로, 제한속도를 비롯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잘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수 있으나 운전경력이 쌓일수록 습관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법규가 불편한 것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사고 사례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미준수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안정형 (공격형)	운전 조작이 거칠어서 급조작, 급차로변경, 급출발이나 급감가속 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차량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 다른 운전자와 경쟁심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면 따라잡기를 하거나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공격적이고 스릴 추구적인 운전을 한다.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한다. 운전 상황은 경쟁상황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교통상황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사고 동영상 등을 통해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적응형 (태만형)	변화된 주행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비나 눈, 안개 발생, 밤 시간과 같은 환경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운전 시 전방이나 주변 환경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물체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안전운전은 주변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에서 확보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운전 시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앞차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능동적인 주변 탐색 훈련을 시켜야 한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상황 인식 검사	상황 지각	운전 중 도로 주변에 있는 사물과 상황을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황인식의 초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교통 상황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익숙한 상황이 아닌 낯선 길을 가거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필요한 교통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다. 따라서 시야를 도로상 뿐 아니라 도로주변까지 확대하여 보도록 하고,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과 관련 없는 것들에 주의를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과 관련성 높은 것들에만 주의를 주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이 복잡한 교차로나 행인들이 많은 거리에서 주의하여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판단 (단순형)	운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리 대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이해를 했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지각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로상의 주변 차량,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 등은 언제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위험판단 (복잡형)	운전 상황에서 주위를 뺏는 다른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동승자와 이야기한다거나 주변기기기를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 상의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운전 중 불필요한 기기조작을 하거나 동승자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도로 외에 다른 곳을 주시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고 운전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인성 검사	정서 안정성	우울, 불안과 같은 내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불편한 심리 상태가 있는 운전자이다. 이로 인한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기타 부수적인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수시로 인간적인 상담 및 면담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동 안정성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 보이며, 교통법규 등 사회적 현상이나 규칙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이다. 운전 시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과속이나 추월 등 위험운전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의 소통을 통해 함께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실 판단력	현재 남들은 흔히 경험하지 않는 감각현상을 겪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능력이 꽤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체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운전자이다. 운전 중에는 다른 생각이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도록 지도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보다 심층적인 심리평가를 받아보도록 한다.
	생활 안정성	음주에 대한 태도가 매우 허용적이며, 조급한 운전 태도로 인해 무리한 운전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 시에는 물론이고, 운전하기 전날 과음을 하지 않도록 한다. 운전 시 반응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업적 만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수시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점검하여 운전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정신적 민첩성	운전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운전 상황 자체에 주의집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운전자이다. 이러한 기능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노화 등에 의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점검해야 될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통화 등은 삼가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운전 안정성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규칙적이고 계획성 있는 생활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이다.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며 무모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사고는 운이 나빠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따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한다.

② 이전 특별검사 Ⅰ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지각 운동 검사	단순반응	운전중 나타나는 단순자극에 대한 인식 및 단순 반응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 주행, 추월 및 끼어들기 상황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야확보후 운행토록 하고, 사소한 것도 확인하고 운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선택반응	운전중 나타나는 자극탐지 및 변별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운전중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또한 교통상황에 대한 파악 및 대처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시각분산	운전중 나타나는 시각적 간섭자극에 대한 주의배분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불필요한 곳이나 물체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차로변경시 이륜차 등에 주의토록 하며 이면도로 운행시 어린아이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니 서행운전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각분산	운전중 청각자극에 대한 주의배분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라디오 청취나 승객과의 대화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운전시 불필요한 청각자극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속도추정	차량 등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능력이 부정확한 운전자이다.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교통흐름에 역행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조급하여 과속의 가능성이 높다.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차로 주행, 차로변경 등 속도예측이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 주의토록 한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인지 능력 검사	언어능력	운전과 관련되는 기본적 지적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도로표지판이나 경고문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며, 익숙치 않은 지역에서 운행시 감속운전 하는 등 보다 많은 사전준비를 통하여 교통상황에 대처토록 한다.
	추리능력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혼잡한 도로나 익숙치 않은 지역에서 운행시 주의가 요청되며, 도로사정 및 지리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운행토록 한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무모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장독립성	교통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혼잡한 교통환경에서 안전운전에 취약하고, 석양무렵이나 야간운행시 객체의 분별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것에도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요청되며, 교차로 등 주변환경이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하여 운행토록 한다.
인성 검사	사회성Ⅰ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며 규율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운전자이다.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를 위반하고 자기중심적 운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교통법규를 피해가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벌점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조항을 사규에 포함하여 제2, 제3의 교육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Ⅱ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불쾌한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운전자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빈번한 경적사용, 의도적인 주행방해, 급정차와 같은 난폭운전의 가능성이 있다. 운전중 교통상황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개발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토록 한다.
	사회성Ⅲ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서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일을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나, 조심성과 계획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어서 때로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이다. 자신의 운전능력을 과신하지 않도록 하고, 돌발상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사고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요청되며, 사회적 법규와 규율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 사 항 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인성 검사	정서성 Ⅰ	일상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집중력이 부족하고 상황변화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자신의 기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심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에는 운전을 자제토록 한다. 운행시 음악이나 사소한 잡담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며, 과속을 자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한다.
	정서성Ⅱ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로서,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이다. 운전중 추월, 과속, 급제동 등 무모한 운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흥분되어 있을 때에는 운전을 삼가토록 하고, 스트레소 해소를 위해 등산이나 운동 등 신체적 취미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서성Ⅲ	활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인내심과 계획성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이다. 운전중 급출발, 급제동, 무리한 추월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토록 하고,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토록 독려한다.
시력 검사	동체시력	시력이 낮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지각력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이다. 과속 및 추월을 삼가토록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시력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력교정 또는 안과전문의의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야간시력	야간시력 또는 암순응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야간운행시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운행하는 습관이 요청되며, 암순응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는 빛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교통상황(맞은편 차량의 전조등을 마주할 때, 터널진입이나 통과시)에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3)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운전자 특징 및 교정교육 착안사항
시야각 검사	운전시, 전방 및 좌우, 주변시야를 천천히 주의깊게 살피는 습관을 익히고 무리한 운전은 삼갈 필요가 있다. 시야확보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의 운전시야 확보 및 자극 탐지능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아울러 시력은 피로 및 체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무리한 운전은 피하도록 한다.
신호등 검사	운전 시 나타나는 상황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손, 발을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정확한 운전 기기 조작 훈련을 지속하도록 지도한다.
화살표 검사	평소에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두뇌와 신체 연결성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비상상황을 상상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평소에 철저히 훈련하여 안전운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도로 찾기 검사	자신의 운전 경험을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복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낯선 도로는 미리 지도를 통해 길을 확인하고, 도로가 혼잡할 때는 무리한 운전을 지양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표지판 검사	연령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안전 운전에는 꼭 필요한 능력이므로 평소에 기억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한다. 아울러 감소된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길은 미리 잘 살피거나 특이점을 숙지하고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운전 중에는 주의를 뺏을 수 있는 잡담이나 중요하지 않은 기계 조작을 피하도록 한다.
추적 검사	아무리 익숙한 운전이라도 교통상황은 늘 새로운 변수가 존재함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한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운전 중 휴대용 기기, 네비게이션 등의 조작을 삼가고, 운전석에도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복합 기능 검사	운전은 끊임없이 교통상황을 살피면서도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복합기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특히 낯설고 복잡한 환경에서 저하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거나, 평소에 심호흡, 이완훈련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제5절 교정교육 활용예

1. 교정교육 계획 수립

『마음열어 양보운전 마음모아 안전운전』

○ ○ 운 수 주 식 회 사

㉮ 000-000 서울시 00구 00동 000-00 / 전화 (02) 000-0000 / 전송 (02) 000-0000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년)

(경 유)

수 신 내 부 결 재

참 조

보존기간		대 표 이 사	
공개여부			
기 안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정교육 계획

1. 관련근거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전직 사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정교육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정교육 계획 1부. 끝.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정교육 계획

1. 목 적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검출된 운전자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교정으로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내 분위기 쇄신에 일조코자 함

2. 방 침

가. 교정교육은 기본교정교육과 특별교정교육으로 구분한다.

나. 교육은 교통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운전자별 교육자료를 준비한다.

다. 교육방법은 개별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도록 교육인원을 안배한다.

3. 세부 시행계획

가. 시행기간 : 20 . 1월부터 변경시까지

나. 세부계획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회수	교육내용	비 고
기본교정교육	전운전자	수 시	수 시	종합판정표 소견에의함	교육실시 현황 및 교육일지 별도작성(별첨)
특별교정교육	특별검사 수 검 자	수 검 후 3일이내	발생시마다		

4. 행정사항

가. 취업담당은 운전직 사원 신규채용시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자 또는 정밀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운전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나. 교통안전관리자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미수검 상태에서 승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교정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2. 교육자료 작성

1) 검사항목별 교정교육 지침 목록표

현행 신규검사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부정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과속 경향 있음 ○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 교차로 주행, 추월 등 속도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 타코미터 장착 차량 배차 고려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자제
주의전환검사	○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부족 ○ 순간적인 주의력 상실의 가능성	- 교통의 흐름 및 상황에 적절히 주의운행 -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지 않도록 주의
반응조절검사	○ 주의조절 능력부족 ○ 차로변경이나 이면도로 운행 시 주의	- 운전시 상황에 적절한 반응능력 강조 - 이면도로 운행 및 이륜차 주의
변화탐지검사	○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 ○ 혼잡한 교통상황에 취약 ○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	- 보행자 사고에 취약으로 횡단보도 주의 - 혼잡한 교통상황 주의 - 차로변경시나 교차로 진입시 주의
거리지각검사	○ 원근거리 시지각력 부정확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	- 시력점검 및 교정 - 과로운전 금지 - 안전거리 유지 습관 필요
인지능력검사	○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 부족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안전운전 취약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주의 -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 후 운행 -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지각성향검사	○ 교통관련 정보의 지각(판단)능력 부족 ○ 돌발적 상황에 취약	- 운전중 잡담이나 기타 소음에 주의 - 교차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
정서안정성	○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에 있음	-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 기타 부수적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
행동안정성	○ 법규위반, 분노와 공격성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방식 표출	- 법규위반, 자극추구, 분노와 공격성 표출 등으로 성급한 운전 행동
정신적민첩성	○ 운전에 필요한 기억부족 및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	- 기억, 운동,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기능 손실
현실판단력	○ 주변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 및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이 없음	- 현실적인 판단력 상실에 의한 사고 위험성
생활안정성	○ 음주 등을 자주하고 경쟁적이며 좌절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나 주변 자원이 부족함	- 음주운전 및 생활불안정성, 스트레스 및 정서적 상태 악화

기존 신규검사 I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부정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과속 경향 있음 ○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 교차로 주행, 추월 등 속도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 타코미터 장착 차량 배차 고려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자제
주의전환검사	○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부족 ○ 순간적인 주의력 상실의 가능성	- 교통의 흐름 및 상황에 적절히 주의운행 -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지 않도록 주의
주의폭검사	○ 폭넓게 전방주변 인식하는 능력 부족 ○ 차로변경이나 이면도로 운행 시 주의	-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조 - 이면도로 운행 및 이륜차 주의
변화탐지검사	○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 ○ 혼잡한 교통상황에 취약 ○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	- 보행자 사고에 취약으로 횡단보도 주의 - 혼잡한 교통상황 주의 - 차로변경시나 교차로 진입시 주의
거리지각검사	○ 원근거리 시지각력 부정확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	- 시력점검 및 교정 - 과로운전 금지 - 안전거리 유지 습관 필요
인지능력검사	○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 부족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안전운전 취약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주의 -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 후 운행 -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지각성향검사	○ 교통관련 정보의 지각(판단)능력 부족 ○ 돌발적 상황에 취약	- 운전중 잡담이나 기타 소음에 주의 - 교차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
정서안정성	○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에 있음	-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 기타 부수적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
행동안정성	○ 법규위반, 분노와 공격성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방식 표출	- 법규위반, 자극추구, 분노와 공격성 표출 등으로 성급한 운전 행동
정신적민첩성	○ 운전에 필요한 기억부족 및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	- 기억, 운동,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기능 손실
현실판단력	○ 주변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 및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이 없음	- 현실적인 판단력 상실에 의한 사고 위험성
생활안정성	○ 음주 등을 자주하고 경쟁적이며 좌절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나 주변 자원이 부족함	- 음주운전 및 생활불안정성, 스트레스 및 정서적 상태 악화

기존 신규검사Ⅱ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부정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과속 경향 있음 ○ 부적절한 상황대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 교차로 주행, 추월 등 속도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 타코미터 장착 차량 배차 고려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자제
주의전환검사	○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부족 ○ 순간적인 주의력 상실의 가능성	- 교통의 흐름 및 상황에 적절히 주의운행 -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지 않도록 주의
주의폭검사	○ 폭넓게 전방주변 인식하는 능력 부족 ○ 차로변경이나 이면도로 운행 시 주의	-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조 - 이면도로 운행 및 이륜차 주의
변화탐지검사	○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 ○ 혼잡한 교통상황에 취약 ○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	- 보행자 사고에 취약으로 횡단보도 주의 - 혼잡한 교통상황 주의 - 차로변경시나 교차로 진입시 주의
거리지각검사	○ 원근거리 시지각력 부정확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대형사고의 가능성	- 시력점검 및 교정 - 과로운전 금지 - 안전거리 유지 습관 필요
인지능력검사	○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 부족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안전운전 취약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주의 -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 후 운행 -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지각성향검사	○ 교통관련 정보의 지각(판단)능력 부족 ○ 돌발적 상황에 취약	- 운전중 잡담이나 기타 소음에 주의 - 교차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
현실성척도	○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 및 예측력 저하 ○ 과속이나 급격한 변속, 갑작스런 차로변경 등 무모한 주행행동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소한 대화 필요 - 필요시 상담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조언
사회성척도	○ 교통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가능성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운전행태	-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 지도 - 교통사고 판넬 전시 참관 유도 - 족구 등 사내 체육행사 참여
정서성척도	○ 정서적 불안정 상태 ○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 주의력 산만 및 판단력 손상	- 개인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개별 상담 - 운동 및 단체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성 유지
통제성척도	○ 복잡한 운전 상황에 충동적 행동 유발 ○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쉽게 포기	- 혼잡시간 및 지역 운행 자제 - 끈기있게 인내하는 마음조절 능력 향상

기존 신규검사Ⅲ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부정확 ○ 과속 또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부적절한 상황 대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 교차로 주행, 추월 등 속도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 타코미터 장착 차량 배차 고려 - 사규에 보상(휴가 등)이나 벌칙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자제 - 시야확보후 후속행동 요구
주의전환검사	○ 주변시 탐지능력의 부족 ○ 순간적인 주의력 상실의 가능성	- 교통의 흐름에 주목하며 운행 -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지 않도록 강조
주의배분검사	○ 주의배분 능력 부족 ○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 이륜차에 의한 사고 가능성 농후	- 주행중 주의를 유도하는 물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강조 -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시 주의
주의선택검사	○ 운전중 적절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부족 ○ 돌발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 부족	- 혼잡한 도로 운행은 가급적 자제 - 낯선도로 운행시 감속운행 - 방어운전 습관화
거리지각검사	○ 원근거리 시지각력 부정확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의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	- 과로운전 금지 - 시력점검 및 교정 - 안전거리 유지 습관 필요
인지능력검사	○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 부족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안전운전 취약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주의 -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 후 운행 -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지각성향검사	○ 교통관련 정보의 지각(판단)능력 부족 ○ 돌발적 상황에 취약	- 교차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 - 석양 무렵, 야간운전시 주의 - 잡담 등 운전방해 요인 사전에 제거 - 사소한 것에도 주의 집중
현실성척도	○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 및 예측력 저하 ○ 과속이나 급격한 변속, 갑작스런 차로 변경 등 무모한 주행행동	- 현실과 관련된 대화 필요 - 필요시 임상심리전문가의 조언 요청
사회성척도	○ 사회규범 무시 및 공격적 운전패턴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운전행태	-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활동 권유 - 교통사고 판넬 전시 참관 유도 - 족구 등 사내 체육행사 검토
정서성척도	○ 정서적 불안정 상태 ○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 주의집중력 및 판단력 손상	- 개별 상담 및 운동, 단체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필요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준수형 (위반형)	○ 교통법규를 중요시하지 않고 신호, 차선, 규정속도를 습관적으로 위반	-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인식 및 사고 사례 교육을 통해 미준수시 불이익 인식
안정형 (공격형)	○ 타운전자와 지나친 경쟁을 하거나 난폭한 운전조작	- 급조작,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인식
적응형 (태만형)	○ 주변상황 및 환경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거나 상관하지 않은 운전습관 소유	- 변화된 주변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상황지각검사	○ 개괄적인 교통상황에 대한 관찰 및 지각능력이 떨어짐	- 교통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복잡한 교차로나 행인들이 많은 거리에 주의 운행
위험판단검사	○ 주변 위험에 적절한 반응을 못하거나 주위를 뺏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짐	- 도로상의 차량이나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이 안전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 - 운전중 불필요한 기기조작이나 동승자와 불필요한 대화 삼가
정서안정성	○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에 있음	-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 기타 부수적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
행동안정성	○ 법규위반, 분노와 공격성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방식 표출	- 법규위반, 자극추구, 분노와 공격성 표출 등으로 성급한 운전 행동
정신적민첩성	○ 운전에 필요한 기억부족 및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	- 기억, 운동,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기능 손실
현실판단력	○ 주변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 및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이 없음	- 현실적인 판단력 상실에 의한 사고 위험성
생활안정성	○ 음주 등을 자주하고 경쟁적이며 좌절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나 주변 자원이 부족함	- 음주운전 및 생활불안정성 , 스트레스 및 정서적 상태 악화
운전안정성	○ 책임감 있는 생활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특성이 부족	- 안전관련 상식적 수준의 지각 부족 -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 중 사고 노출 가능성
동체시력	○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지각력 부족 ○ 과속 및 추월시 사고 가능성이 높음	- 시력 점검 및 교정 -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이 요청되며 과속하지 않도록 강조 - 과로방지 등 배차 조정
야간시력	○ 야간 시지각력 및 암순응력 부족 ○ 야간운전시 사고 가능성이 높음 ○ 빛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취약	- 야간운행시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운행 -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터널 진입시 또는 통과후 빛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으므로 서행 등 주의 요망

기존 특별검사Ⅰ 교정교육 지침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단순반응	○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자제 - 시야확보후 후속행동 요구
선택반응	○ 자극탐지 및 변별능력 부족 ○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운전 취약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 안배 - 대처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운행
시각분산	○ 시각자극에 대한 주의배분 능력 부족 ○ 혼잡한 도로, 이면도로 운행시 사고 가능성이 높음	- 불필요한 장소나 물체에 신경쓰지 않도록 강조 -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시 특히 주의 요망
청각분산	○ 청각자극에 대한 주의배분 능력 부족 ○ 라디오 청취, 승객과의 대화중 사고 가능성 농후	-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고, 대화내용에 몰입하지 않도록 강조
속도추정	○ 이동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부정확 ○ 과속 또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부적절한 상황 대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 교차로 주행, 추월 등 속도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 타코미터 장착 차량 배차 고려 - 사규에 보상(휴가 등)이나 벌칙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안전거리 유지 및 과속방지
언어능력	○ 기본적인 지적능력 부족 ○ 도로표지판이나 경고문 등 운전상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 도로표지판이나 경고문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숙지 - 초행길 운행시 감속운행 등 주의요망
추리능력	○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력 부족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안전운전 취약	- 혼잡한 도로나 낯선도로 운행시 주의 - 사전에 도로상황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숙지 후 운행 - 사소한 사항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장독립성	○ 교통관련 정보의 지각(판단)능력 부족 ○ 돌발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 취약	- 교차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주의 - 석양 무렵, 야간운전시 주의 - 잡담 등 운전방해 요인 사전에 제거 - 사소한 것에도 주의 집중
동체시력	○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지각력 부족 ○ 과속 및 추월시 사고 가능성이 높음	- 시력 점검 및 교정 -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이 요청되며 과속하지 않도록 강조 - 과로방지 등 배차 조정
야간시력	○ 야간 시지각력 및 암순응력 부족 ○ 야간운전시 사고 가능성이 높음 ○ 빛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취약	- 야간운행시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운행 -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터널 진입시 또는 통과후 빛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으므로 서행 등 주의 요망

검 사 항 목	위 험 인 자	교육시 착안사항
사회성척도	○ 사회규범 무시 및 공격적 운전패턴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운전행태	-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활동 권유 - 교통사고 판넬 전시 등 참관 유도 - 정기적인 사내 체육대회 검토
사회성 Ⅰ (법규위반 성향)	○ 사회적 가치, 법규, 규범 및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 ○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 위반 ○ 자기중심적 운전행동에 따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	- 벌점에 따른 사내 포상 및 벌칙 적용 검토 - 교통사고 판넬 전시 등 참관 유도 - 개인 면담을 통하여 일시적인 편의가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초래함을 주지
사회성 Ⅱ (폭력 성향)	○ 내재된 분노 및 적개심을 외부환경 및 타인에게 표출하는 경향 ○ 빈번한 경적 사용, 의도적인 주행방해 및 의도적인 추돌사고 유발 가능성	-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활동 권유 - 교통상황에 대한 인내심 도모 및 스트레스 해소책 강구
사회성 Ⅲ (무책임 성향)	○ 이기적이고 자기본위적이며, 과시적, 허세적인 행동경향 ○ 규칙 미준수 및 외부귀인 경향이 강하여 자신의 의도를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려는 경향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 필요 - 돌발상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등 주지 - 교통사고 판넬 전시 등 참관 유도
정서성척도	○ 정서적 불안정 상태 ○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 주의집중력 및 판단력 손상	- 개별 상담 및 운동, 단체활동 등을 통한 정서함양 필요
정서성 Ⅰ (우울불안 성향)	○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긴장, 불안감 및 우울감 표출 ○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 기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심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운행 자제 요청 - 사소한 잡담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됨
정서성 Ⅱ (분노 성향)	○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신경질적이고 적대적인 반응 ○ 난폭운전, 경쟁운전 등의 보복행위나 무모한 운전행동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등산이나 운동 등 신체적 취미활동 권유 - 흥분되어 있을 때는 운행 자제 권유
정서성 Ⅲ (충동 성향)	○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무계획성 ○ 급제동, 급회전, 무모한 추월, 신호대기 중 조급성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등산이나 운동 등 신체적 취미활동 권유 - 교통사고 판넬 전시 등 참관 유도 - 평소 침착성을 유지하는 습관 필요

2) 운전자별 교육자료

교 정 교 육 자 료

NO.

성 명	홍 ○ ○	주민등록번호	121212 - 1234567
정밀검사 수 검 일	신규 : 20 . 3. 6 특별 : -	종합판정표	별 첨

최근 3년간 사고사례

1. 승객하차중 오토바이에 치임(중상 1명, 2000. 12. 30. 14시 30분경)

생 활 태 도

1. 시무룩하고 의욕이 없으며, 동료 운전자와 접촉이 별로 없음
2. 순간적으로 멍한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가끔 목격됨

위 험 인 자

1. 차간거리 예측능력 및 통제력 부족
2. 주변시 탐지능력 부족
3. 순간적인 주의력 상실 가능
4.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시 사고 가능성
5. 정서적 불안정 상태
6.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교육시 착안사항

1. 개별 상담, 족구 등 단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
2. 안전거리 유지, 과속 방지 등 강조
3. 차로변경, 이면도로 운행시 특히 주의
4. 교차로 등 혼잡한 지역 운행시 주의
5. 운전중 교통 흐름에 주목하고 항상 경계하는 자세 유지

3. 교육일지 등 교육현황 기록·관리

교정교육일지

20 . . .

결재	담 당	부 장	전 무	대표이사

1. 교육 대상 및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	운전자명	정밀검사 수검일	주요 교육내용	비 고

2. 교육자료

3. 사고위험성 분석

4. 종합의견(평가)

5. 특이사항

(　　)년도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정교육 실시현황

교 육	운전자	수 검	검 사 명		종합	교 육 내 용				담 당 자	
일 자	성 명	년월일	신규	특별	판정	소견교육	정신교육	법규교육	기 타	성 명	서 명